

법회안내

월운스님(봉선사 주지) 3월13일 오후 3시 동국대 정각원 삼장법회. 음악 보름법회 오전 10시. 매일 음악 초하루 오전 10시 서울 신대방동 흥원사 법회. (0346)555-5974

인환스님(동국대 명예교수) 매일 넷째 일요일 오전 11시 수국사 가족법회. 매일 음악 3일 오전 11시 화계사 삼성암 기도법회. 매일 음악 18일 오전 11시 경국사 지장재일 법회. 매주 수요일 오후 2시40분 한국 불교연구원 원효당 '선의 이론과 실제' 강의. (02)942-5282

현성스님(현성정사 원장) 3월 6일 오전 10시 보살계법회. 음악 초하루 오전 11시 신중기도법회. 음악 8일 오전 11시 방생재일 법회. 음악 보름 오전 11시 포살대법회. 음악 24일 오전 11시 관음재일 법회. 일요일 오전 10시 어린이법회. 일요일 오후 2시 시민선법회. (02)3216-5405

지운스님(송광사 강인 강주) 3월1일부터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서울 성북동 길상사 가족법회(대승 육점장회)강의. 광주 일각사에서 매일 둘째 일요일 오전 11시 <금강경> 강의. (02)3672-5945

정덕스님(인교선원 주지) 음악 초삼일 법회, 지장재일 법회 오전 10시.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어린이법회. (02) 907-3706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법사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신행수첩



○봉영사 주지 철안스님의 지도에 따라 '광명진인 사경'에 집중하고 있는 불자들의 모습은 어느덧 세상 모든 번뇌를 잊은 듯하다.

봉영사 'IMF극복' 사경불사

1배에 탐욕심 놓고 1자에 세상시를 잊고

경제난국을 맞아 불력으로 답답한 마음을 풀고 나라의 평안을 기원하자며 주장하고 나선 사찰이 있다. 천년고찰 남양주 봉영사(주지 철안)다. 봉영사는 7일부터 작은 절약, 작은 실천을 통해 수렁에 빠진 경제위기에 대처해나가는 바람(願)으로 '광명진인 사경불사'를 시작했다. 일명 IMF형 사경불사. 이 불사는 보시금만으로 동참할 수 없다. 검소한 절약생활이 선행되어야 한다. 금연, 금주, 자가용차 등 작은 실천을 통해 절약한 만큼 보시하고 불사에 동참하는 것. 즉 1일 1천원도, 몇백원도 가능하다. 이 광명진인 사경불사는 동짓날까지 이어지며 사경한 것은 모두 대웅전 부처님 복장유물로 봉안된다. 봉영사 주지 철안스님은 "우리민족은 13세기 국어인 몽고군의 말발굽아래 놓

여 있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간절한 바람을 발만대장경 관각불사에 담았다"며 광명진인 사경불사의 의의를 강조했다. 지금 당장은 살아가는 일이 힘들더라도 술과 담배에 의지하며 세상시를 혼자 겨냥지 말고 1자배 광명진인 사경불사에 동참해보면 어떨까. 지금 봉영사 대웅전에는 작은 책상과 사경자, 경면주사가 당상을 기다리고 있다. 1배로 탐욕 떨치고 1자로 세상시름을 깨끗이 씻어버리자. (0346)571-0555

신라인의 이상세계 여행

민학회, 중학생 경주답사 우리 불교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답사가 봄방학을 맞은 중학생들과 예비중학생들을 기다린다.

게시관

덕목, 불교의법, 반야심경 등 강의. (02)732-1206 △기초교리=능인선원(주지 지광) 능인불교대학은 불교기초교리, 불교의 본질 등을 매주 화, 금요일 주간반과 야간반으로 나눠 실시한다. (02)557-5800 △한지공예·다도교실=동화사 포교원 관조사부설 불교사회교육원(원장 지두)은 3월3일부터 3개월간 매주 화요일 오후2시 관조사 법당에서 전통한지공예 강좌를 갖는다. 또한 3월 5일부터 5개월간 매주 목요일 오후2시에는 전통다도예교실을 연다. 한지공예 수강료는 3만5천원이며 다도교실은 무료. (053)784-3669

대학(학장 도상)은 아간과정 불교학과·경전연구과(법사)과 신입생을 28일까지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불교학과 1백50명, 경전연구과 50명이다. (062)222-0819 △지적증취반=본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철웅)은 머리미용·컴퓨터·종이접기 초급강사 자격증 취득반 수강생을 수시로 모집한다. 3개월과정의 머리미용의 수강료는 3만7천원, 컴퓨터는 2개월과정에 월2만8천원, 종이접기는 3개월과정에 월4만5천원. (02)817-8052 △자원봉사자=청담사회복지관(관장 혜성)은 메이크업, 피부관리, 영어회화 등을 3월초 개강한다. 또 65세 이상 무의탁 독거노인에게 필요한 물품후원 및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806-1375

이전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공동회장 설초·안동일)은 21일 서울 종로구 정동 15-5 정동빌딩 5층에서 15시 정중했다. (02)765-5448, 017-244-8237 △전국불교노동연맹(상임의장 지선)은 14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83-3번지로 이전했다. (02)720-1902 △천태종 천태종보사는 16일 서울구 우면동 관문사로 이전했다. (02)573-7645~6

화측 △법보신문사 황도차장이 28일 오후 1시 신촌 태고프리카에서 이수경씨와 화측을 밝힌다.

나의 수행일기



송지연

<한국불교사회봉사회 회장>

20여년전 어느 여름 날. 절친한 고향 친구인 김순화씨와 함께 도봉산에 올랐다. 나와 불교와의 본격적인 인연은 그날 우연히 떠난 봄 나들이로 부터 시작되었다. 젊은 시절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어린이 지도교사까지 한 내가, '천수 다라니' 보다는 '주기도문'이 더 입에 익던 내가 어떻게 불자가 되었을까. 지금 생각해도 의문이다. 아마 도봉산 천축사의 절경처럼 신비스러우면서도 자연스러운 불교의 가르침이 나를 서서히 매료시켰던 것은 아닐까.

내가 불교를 접한 것은 주로 책을 통해서였다. <천수경>이나 <금강경> 등 경전을 쉽게 해석한 책을 통해 기독교와 불교의 교리를 비교하며 자연스럽게 불교에 친숙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천축사와의 인연은 특별한 계기가 되었다. 그전부터 서울 시내의 포교당을 친구와 가끔 찾곤 했지만 본격적인 심신을 갖진 못했다. 결국 그날 천축사의 아름다움에 감탄

있는 날이면 며칠 전부터 양재동 꽃시장에서 꽃을 팔라 직접 부처님께 공양할 꽃을 다듬는다. 정성을 담아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고 아침 일찍 그 꽃을 들고 절을 찾는 그 마음은 마치 내버려둬 가버린다. 매번 이같은 환희심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지 모른다.

조계사·능인선원 불교대학을 졸업하면서 포교사 자격증도 따는 등 나름대로 불교에 대한 깊이가 더해졌다. 그러면서 느낀 것이 <금강경>의 '무주상 보시(無住相布施)'의 실천이었다. '진정한 무주상 보시를 실천할 수는 없었지만, 불자라면 마땅히 봉사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났다. 10여년전부터 시작한 불교사회봉사회 회원으로서의 활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사회에 회향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의 과정이었다.

천축사, 원효정사 불자 3백명으로 구성된 불교사회봉사회 회원들은 불

20년째 매월 산사 참배

꽃공양·봉사활동 통해 '감사함' 배워

봉은사 신도인 친구의 권유로 주조정 작은 주사 불교와 나를 잇는 튼튼한 다리가 됐다. 천축사를 처음 다녀 온 날 뒤 절에서 업서가 날아왔다. 나만존자 기도에 참석하라는 안내문이였다.



교 4대명절과 각종 행사장에서 하루하루를 열거나 수시로 차·미역 등을 부지런히 판매해 왔다. 회원들의 회비도 함께 모아 작은 정성이지만 지금까지 어린이 40여 명에게 7천여만원의 수술비를 지원해 왔다. 또

그로부터 나는 20여년을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절을 찾고 있다. 이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사를 오른다. 무심코 시작한 산사참배가 이제는 가장 큰 수행방편이 되었다. 이른 아침 맑은 공기를 마시며 '관세음보살'이나 '천수 다라니'를 외우며 오르는 산사는 일상에 찌든 심신을 정화하고 자연과 하나되는 청정심을 자아낸다. 이와 함께 가정에서는 밥 하기전 새벽에 '천수 다라니' 7독, 저녁에 잠들기 전에 <금강경> 1독을 지극했다. 나름대로 심신이 깊어지면서 문득 천축사 부처님 전에 꽃을 내 손으로 올리고 싶다는 발심이 났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연화정사의 정명스님으로부터 배운 꽃공양이었다. 매달 초하루나 부처님오신날, 특별한 법회가

한 불우 이웃을 위한 생활비 보조, 군부대 위문 등과 함께 주부 회원들은 10~15명씩 하루 봉사팀을 구성, 서울대병원 등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언제나 느끼는 것은 '나를 포함한 불자들이 남을 위해 배우는 것에 아직은 인색하다'는 생각이다. 좀 더 아낌 없이 줄 수 있다면 이것이 무주상 보시가 아닐까? IMF 아래에서도 견뎌낸 남편, 출가한 첫째 딸, 시립아동상담소에서 봉사 활동 중인 둘째 딸, 그리고 직장인인 아들. 나는 나의 가족이 언제나 건강하게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을 불교 공부 덕택이었다고 생각한다. 남을 위한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알기에 나는 오늘 또 연꽃을 다듬는다.

인사

불교신행연구원 △사무장 김정진

강좌

△실천불교학교=보광사(주지 효림)가 제7기 실천불교학교를 연다. 3월11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11시30분)과 오후 7시(7시30분)으로 나눠 부처님의 생애, 불교기초교리 등 교육을 실시한다. 보광사는 또 3월10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30분 <천수경> 경전 공부도 진행한다. (0348)942-7700 △불교사회화=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스님)은 3월 12일부터 4월23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10시 불교사회화 특강

"양력생활풍수에 적용하면, 악운을 예방하고 행운을 불러들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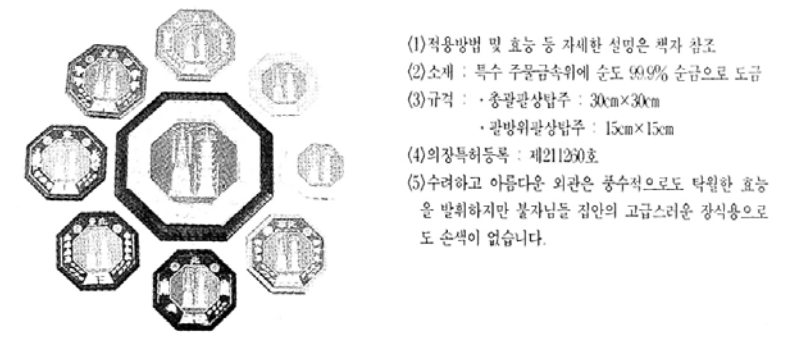
12품 팔상탑주(八相塔主)의 비법

책자내용(목차)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3 생활풍수의 기본적 개념·생활풍수의 기본요소·생활풍수의 이론적 배경 4 팔괘의 심층에 대한 설명 5 팔상탑주의 조성원리 6 팔상탑주의 종류 7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그 효력 8 나침반의 방, 실내방의 관동방법 9 팔상탑주 구입방법 10 팔상탑주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예 11 생활현면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12 팔괘의 만다라 맥자의 신비 13 음택(산소)풍수 14 음택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의 토질로 변화하게 하는 황동관 팔괘 만다라와 팔괘 불담다라니의 신비한 작용과 조성동기 및 산소적용 방법 15 산소(묘)이상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으로서의 황동관 팔괘 만다라와 황동관 팔괘 불담다라니의 처방비법

"이 책자를 다 읽고 나면 자신의 운명(運命)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다" "생활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앙과 재난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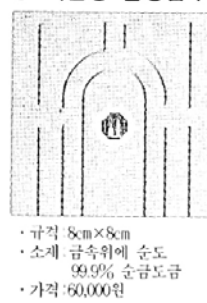
"운이 약한 자를 운이 강한 자로 만들어 주는 생활풍수체세비법"

*팔상탑주(八相塔主)는 12품의 종류와 방위를 관동하는 나침반으로 구성



◎ 팔상탑주(八相塔主)의 효력 강한 기(氣)의 생성과 균형, 관동과 음양의 조화, 심지어 오행상의 상생과 조화시킨 양배 생활풍수원리의 불담신주(佛塔神呪)의 위력이 합일(合)되어 조성된 12품의 팔상탑주(八相塔主)는 가족이나 사무실, 가게 등에 적용하는 순간부터 그 곳의 운기(運氣)를 최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운세를 무엇이라도 좋을 수 있는 강한 운(運)의 소유자로 만들어준다. 즉, 12품 팔상탑주(八相塔主)의 비법스럽고 불가사의한 효력은 적용되는 순간부터 거주민들에게 미치는 악운(惡運)을 예방시키고, 행운(幸運)을 가져오기 시작하며 결혼·재정·학업성취·대인관계 등에서 유익하게 작용하도록 하고 직업면에서도 운(運)이 열리고 자손이 번성하고 명성을 얻게 하며 가족이 화목하게 되고 많은 부(富)를 쌓게 하여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 "스님들을 통해서만 그 효력이 발휘되는 팔상탑주 처방비법" 본 책자는 현재 전국에서 사암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들께만 연락주시는대로 1권씩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팔상탑주는 스님들께서만 해주실 수 있는 특별한 처방비법이 따라야 하며, 이 방법을 거처야 그 효력이 발휘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님의 신도들에게 풍수적으로 불가사의한 효력을 나타내는 팔상탑주를 적용하여 신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십시오. ◎ 불자님들께서는 본 책자를 요약한 카다로그 설명서를 보내드립니다.

대문용 팔상탑주



* 12품 팔상탑주 중에서 최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은 대문 앞에 대문용 팔상탑주를 세팅 먼저 부착해 놓는 일입니다. 대문을 집에 들어오고, 나가는 기(氣)의 출입구입니다. 일단은 대문을 통해 들어오는 재앙과 불행과 나쁜 사기나 악운을 막아주고, 하고 상서로운 기만 출입되도록 풍수적으로 먼저 조치를 해주고 다른 처방을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특히, 앞집대문과 마주보고 있는 대문은 풍수상으로 직상방이라 하여 기가 약한 집이 집안의 생기를 잃기에 모두 폐악기 한 집은 망하게 되거나 집안이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때, 대문앞에 팔상탑주를 부착하면 그 시점부터 집안에 좋은 생기가 돌고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기가 약하거나 외부로 빠져나가거나 폐악기 않도록 작용하며 또한 외부의 나쁜 사기를 완전히 분산시키고 재앙하여 출입자에게 강한 운(運)을 제공하며 운세가 약하거나 기우는 집안이 이로 인해 다시 운세가 강해지는 운안이 역할을 시작하게 됩니다.

차량용 팔상탑주



* 각 가정마다 차량은 필수품이 되어 있는 현실에서 차량의 안전을 위한 것은 무엇보다 우선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사업번창도 좋고, 가정의 번영도 중요하지만 차량사고로 인하여 불행한 일이 발생한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용 팔상탑주는 차안에 필히 걸어 두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합니다. ◎ 풍수적으로 큰 힘을 발휘하도록 조성된 차량용 팔상탑주는 앞면에는 총관팔상탑주, 뒷면에는 팔괘만다라를 새겨넣어 차안에 걸게 되면 차안에 생기가 충만해 주고 운전자나 탑승자의 운기를 강하게 향상시켜 줌으로써 외부로부터의 사고방해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여주고 예견해주는 작용을 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시키고 차량자체도 생기가 뿜어나와 돌발적인 사고가 저절로 피해가도록 조절해 줍니다.

◎ 금년부터는 나라살림·회사살림·집안살림 모두가 어려워졌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재앙이나 악운이 닥치고 행운마저 외면한다면 우리 불자님들은 건너대기가 무척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생활풍수원리에 따라 조성된 12품 팔상탑주를 자신이 원하는 용도에 따라 종류를 선택하여 가정이나 사업체, 가게, 상점, 공장 등에 적용하면 풍수적으로 맞지 않는 곳을 교정시키고 차단된 기(氣)와 역류되고 있는 운기(運氣)를 관동되도록 조화시키고 기(氣)를 북돋아 줌으로써 불행과 피하고 또한 최소손으로 예방시키면서 건강과 부와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입니다.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